

# 전주시, 수돗물 병에 담아 '전주얼수' 생산

### 연간 70만병 생산할 수 있는 수돗물 병입수 자동화생산설비 완공

용담호의 청정 1급수 물을 이용한 먹는 물이 지역 축제 등 각종 행사에 무상으로 공급된다.

전주시는 용담댐 광역상수도 원수를 사용해 고산정수장에서 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플라스틱 용기(PET병)에 담은 전주시 수돗물 병입수 '전주얼수'를 8월부터 생산·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총사업비 5억5000만원을 들여 삼천면 삼천가압장 부지 내 자동화 생산설비와 탈염설비 등을 갖췄으며, 7월 말까지 시험생산을 거쳐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이곳은 용기를 자동 공급하는 시설인 정수기와 용기 내부를 세척하는 세병기 수돗물을 용기에 정량 투입하는 충전기, 용기 뚜껑을 닫아주는 캡핑기 용기에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날인기 필름 포장기 등 자동화설비를 갖췄으며, 수돗물 병입수(PET병 350ml)가 하루 평균 8000병, 연간 70만병까지 생산된다.

전주얼수는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으로, 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수돗물 사용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전주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주

요 행사, 사회단체 구호나 자선행사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단수와 급수사고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 급수용으로도 활용된다.

전주얼수 이용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 신청하면 공급지침에 따라 협의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난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맑은물사업본부 삼천가압장 생산현장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병입수 상표명을 20일간 공개 모집해 총 107명 171건의 응모와 중수돗물 평가위원회 및 전주시 정책조정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전주얼수'를

최종 상표명으로 선정했다.

은희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병입수 '전주얼수'의 무상공급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 향상을 통해 수돗물의 음용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담호의 청정 1급수를 원료로 고산정수장에서 정수처리 후 전주시 등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칼슘(Ca)과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륨(K) 등 몸에 이로운 각종 미네랄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보다 1~2배 더 많고, 역삼투압방식 정수기보다는 미네랄이 50%이상 더 균형 있게 함유된 건강한 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재기자

#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순조

### 호동골 매표장 등 공영화차지 44곳으로 늘어

60년 만에 추진되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에 맞춘 시내버스 공영화차지가 조성됐다.

전주시는 전주·완주 시내버스의 새로운 운행노선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덕진구 우아동 4호동골매표장 내에 237㎡ 규모의 시내버스 공영화차지를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화차지는 호동골매표장과 평화동 종점 전주대 종점, 옛 통계청 비전대 등 총 4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호동골화차지는 노선개편안에 따라 기존 4·1번과 4·2번 순환버스가 각각 102번과 103번 노선으로 대체돼 기존 108회에서 170회로 증편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골목노선을 없애고 이종리 방면 노선을 확대해 신설되는 조촌동·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힘을 기울여"이라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단축된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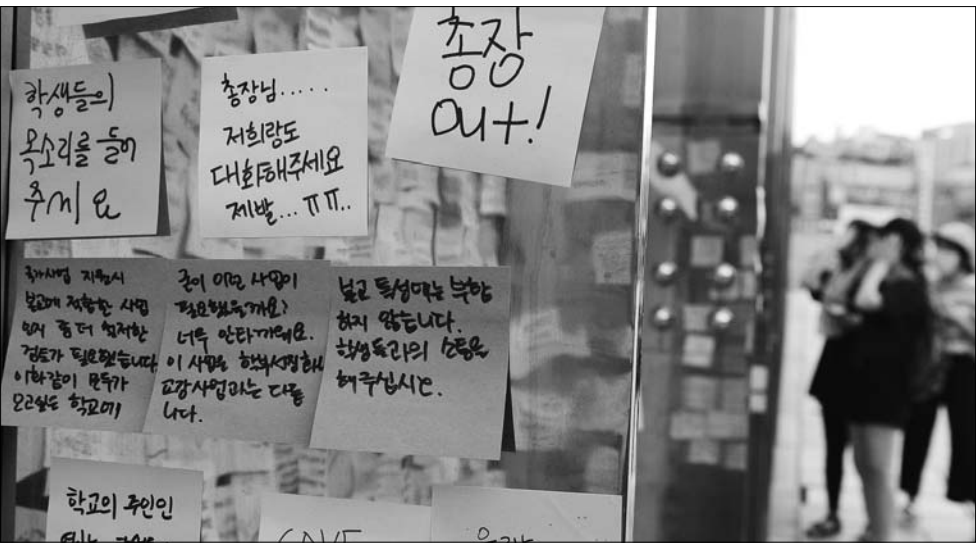
호동골매표장 화차지에는 진·출입로 확장과 함께 주차면 12면과 운전자 컴퓨터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비롯해도 쾌적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의 실제 교통 수요와 이동패턴에 맞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마련하고, 운행노선 확정을 위해 현재 전주시 33개 동과 혁신도시 등 34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시민 의견수렴 및 완주군과의 협의 등을 거쳐 노선개편안이 확정되면, 확정노선에 따라 시내버스 승강장이전과 화차지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힘을 기울여"이라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마래리프 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설립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거 점거 농성 7째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메모장에 마래리프 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문구를 적어 넣고 있다.

# 전주시, 공동주택 등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노후급수설비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키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는 공동주택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옥내급수관의 부식을 방지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하반기에 총 7200만원을 투입해 옥

내급수관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한 수질기준(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을 초과하는 경우 급수설비의 세척과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85㎡이상의 세대 50%이상인 공동주택과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시는 총공사비의 50%까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중순까지다.

이호평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

과장은 "옥내급수관의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수질의 물을 공급 받는 시민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해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옥내 급수관의 노후 및 부식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총 50개소(1만3820세대)의 급수설비를 지원했다.

/김영재기자

# 전주동물원 폭염대비 동물관리

전주시가 전주동물원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의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질병 예방에 팔소매를 건어붙였다.

전주동물원(원장 김두일)은 동물원 내 103종 611마리의 동물들이 폭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질병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한 달간 특별 사육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원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동물사육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세부 사육관리대책으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동물사 내외부에 차양막을 설치해 햇빛을 차단시켰다. 또, 원활한 환기를 위해 환풍기 정비를 완료했다.

/김영재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

**50대 항소기각 징역 유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8시5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은행 앞 도로까지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붓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3년 7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중 전력이 3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재기자

# “산모·신생아 건강하게”

### 전주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전주시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체계적인 산모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생아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세탁물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선정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단태아 2주(10일), 쌍태아 3주(15일), 삼태아 및 중중장애인 산모는 4주(20일)이며,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각 가정에서는 서비스가

각 차액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와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18세 미만)에게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명서류(산모 수첩,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 신분증이며, 산모 또는 가족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전주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은 관내 10개소로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jonju.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2)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전주시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http://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mailto:jvsc@hanmail.net)